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2월 26일 (제1190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무식하게 믿어!

어느 전도사가 어떻게 해야 목회에 성공하는지 내게 물었다. 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믿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것이 내가 목회에 성공하고, 세계 73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된 비법 중 하나이다. 나는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요14:12)는 말씀을 그냥 믿는다. “진짜요?” 하고 되물지도 않았고, “그게 가능해요?”라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귀신을 쫓는다. 귀머거리의 귀에 손을 넣고 ‘뿔려’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의 눈에 침을 뱉고 문지르며 ‘귀신이 가라~’ 한다. 말을 못하는 자들의 입속에 손을 넣고 혀에 손을 대며 ‘에바다’ 한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참 비위생적이고, 무식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행동이다. 그러나 나는 무식하게 예수님을 따라 한다. 왜냐? 그대로 하면 안 보이던 자의 눈이 보이고, 안 들리던 자의 귀가 뿔리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는데 난들 어찌겠나. 어찌 이를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도 안 믿는 것이 무식한 것 아니겠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막9:7). 그 예수는 말씀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왜 목사들이 능력이 없는가? 나를 유식해서 그렇다. 신학적으로 예수를 논하고, 파헤치니까 능력이 없는 거다.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분해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밥 먹자.’ 했는데, 아이가 “잠깐만요, 분석 좀 해보고요. 영양 밸런스가 맞는지, 이게 한 끼니로 먹기에 합당한지 생각 좀 해볼게요.” 한다면 엄마가 기가 막혀서 밥그릇을 뺏어버릴 것이다. 엄마가 오죽 생각하고 맛있게 쫓을까. 하나님 이 어렵히 알아서 따라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무식하게 믿자. 그것이 순종이며,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감당할 수 없다.

배는 항구에 묶어두란 것이 아니다

인간이 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육지의 끝, 드넓은 바다 앞에 이르러 더 이상 나갈 수 없던 인간이 넘실대는 파도를 보며 그 너머에 있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한 동경심과 도전의식, 모험정신에서 발로한 결과이다. 15세기 말부터 열린 대항해시대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런데 눈 앞에 찰싹거리는 파도가 두렵다고 배를 항구에 정박해두기만 하면 그 인생은 딱 거기까지다. 단 한 발자국도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38년을 넘어 39년 차에 이르고 있는 목

선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놓았다. 2000년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드네프로)부터 18년 동안 구소련 해체와 함께 신생한 15개 공화국 가운데 8개 나라를 순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했다. 특별히 이 지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를 다니며 목사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서는 숙소에 가스가 새어나와 질식사된 적도 있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KGB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종교 재판에 넘겨져 추방되기도 하셨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입국 금지 조치가 내

려고 있던 산모가 해산 후 모든 고통을 잊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성취의 기쁨으로, 그것을 양식으로 살아오셨다.

그래서 다시 또 그 흥분의 도전을 시작하시려 하는 것이다. ‘배는 항구에 묶어두란 것이 아니다. 삶 속에 문제가 없다면 죽은 것이다.’ 변화가 두려우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 퇴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이다. 배를 항구에 정박해두기만 하면 그 배는 결국 썩어 퇴락하고 만다. 전장(戰場)을 달리



사님의 성역(聖役)은 바로 도전과 모험의 연속이었다. 그 정신으로 넘을 수 없다는 벽들을 차례로 부수며 전국으로, 세계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오셨다. 3년의 코로나 팬데믹이 잠시 그 여정을 멈추게 했지만, 어찌 보면 이는 재장전의 시간이었다. 다시 목사님은 3월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재개하신다. 우리 교단의 지난 해외선교의 역사에서 첫 해외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이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참으로 의미심장한 출발이다. 1992년 첫 일본방문부터 25년 가까이 전 세계를 메주 밟듯, 지구 150바퀴 이상 돌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

지난 주일 은혜를 나누는 2003년 우크라이나 집회 영상을 보면 그 끝에 러시아어권

려져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시베리아에서는 경찰들이 숙소로 난입하여 조사를 하고, 세미나가 열린 호텔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정보에 세미나를 중단하고 황급히 밖으로 대피한 일도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키이우(키예프)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다 날개가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도 하였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 자동차가 전복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런 일들에 비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이단이 왔다고 방해하는 일들은 애교 수준이었다. 참 험난한 시간들을 지내오셨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도전해온 흥분과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신다. 마치 산고(産苦)를

던 말은 계속 달려야 한다. 호랑이에 올라탄 자는 계속 달리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내리는 순간 그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목사님의 뺨속까지 각인된 정신이고 삶의 철학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끌어내 주셔서 평안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문제는 가득하지만, 인생의 암초는 늘 다가오지만 하나님으로 은혜의 수위를 높여 믿음의 평안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023년을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원년(元年)으로 삼아 문제를 친구 삼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로 여기며 두드리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린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8~14)

후회 말고 기회 있을 때 주님의 일 하자

지금도 가슴에 꼭 품고 있는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꾸 꿈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회의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여 쉬고 싶은 마음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피곤하면 쉬어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냐?” 하시며 벌떡 일어나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잠에서 벌떡 깰았습니다. ‘맞아,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야. 내가 잘 나서도 아니야. 하나님이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해.’ 그 꿈은 저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복을 이길 겨울은 없고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다

맞습니다. 이초석이 없으면 지구촌에 복을 전할 사람이 없을까요? 천천만만입니다. 모세가 끝내 못하겠다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론을 들어서라도 출애굽의 대역사는 이루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르드개도 에스더에게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4:14). 우리가 지난주 함께 봤던 2003년의 우크라이나 키이우(키예프) 집회는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집회를 배설하기로 한 목사가 방해하는 세력에 넘어가 집회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종인 비탈리 목사를 들어 집회를 성공적으로 열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거나 변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다. 그때 주인이 “사람들이 없으니 이 잔치를 접읍시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눅14:21)고 했습니다. 잔치집에 초청받은 자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잔치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채워서라도 주인의 잔치는 배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길과 산을가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가 잔치집을 채워서 주인의 계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쉼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과업은 꾸준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이초석이길 바라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넌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뭐라 하시겠습니까?

우물쭈물하실 겁니까?
저는 당

당히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

님,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 정말 죽을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도, 이단이라고 정죄 받고 제명당했을 때도, 최루탄으로, 칼로, 총으로 위협을 당했을 때도, 비바람이 몰아쳐 마이크가 나가고 단이 무너졌을 때도, 차가 전복되었을 때도, KGB에 감혔을 때도, 빈대가 온몸을 물어도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실 겁니다.

저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른 양떼들도, 제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른 자식 같은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저를 자랑하는 멋지고 신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꾸었던 그 꿈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고,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제 꿈이요, 목표입니다(눅22:29~30).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드러야 합니다.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화과나무는 예수께서 열매를 달라 하실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건

넷마를 어린 나귀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벗어 놓은 옷가지 위를 걸었고 ‘호산나’ 찬미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준 것은, 지식을 준 것은, 지혜를 준 것은, 물질을 준 것은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은사로, 그 열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있다가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늘 말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고, 가장 아픈 거랍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를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헌신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은 해도 해도 너무해, 우리를 너무 달달 북아.’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날에는 오히려 저에게 감사할 겁니다. ‘이래

서 그러셨구나.’ 할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논공행상(論功行賞)은 이 땅에서는 물론 내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니까요.

솔직히 똑같은 상을 준다면 저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대충, 좀 쉬어가며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3월 20일 일본을 시작으로 멀리 페루까지 집회를 잡아놓은 것은 일한 만큼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9:24).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난색을 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없는 은혜입니다. 그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내 육체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지식을 기쁨으로, 아낌 없이 얹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지 나에게 사정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사람에게 사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정하실까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어둔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아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옵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네 육체 좀 쓰자.”, “네 물질 좀 쓰자.”, “네 시간 좀 쓰자.” 그때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됩시다. 누가복음 14장의 사람들처럼 ‘내가 발을 사서’, ‘내가 소다섯 겨리를 사서’, ‘내가 장가를 들어서’라고 말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하고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됩시다.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써 주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도구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됩시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3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 모두가 너무 무뎌지고 굳어졌습니다. 이제 묵은 지경을 갈아엎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을 이길 겨울은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궁색한 변명

뒤로 물러나지 말라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는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자못 흥미롭다.

‘나는 밭을 샀으매… 땅을 사서 그것을 보러 간다.’,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소를 산 김에 시험해보러 간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결혼해서 못 간다.’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답은 한가지다. ‘못 간다’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하루 두 끼 식사를 하는데 늦은 아침과 업무를 모두 끝낸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한다. 왕이 사람들을 초청한 시간은 바로 저녁 만찬 때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후에 이들의 반응을 다시 살펴볼도록 하자.

‘땅을 사서 이를 보러 간다고?’ 그렇다면 보지도 않고 땅을 사는 경우도 있나! ‘소를 시험해 보러 간다고?’ 밭이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한밤중에 말인가? ‘결혼해서 못 온다고?’ 아니 결혼하면 집안에 꿈쩍도 하지 않고 처박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변명이 궁색하기만 하다.

그러나 어리석다 말하지 말라. 이러한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하나님의 절대명령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된 소식을 전하라’ 하시는 지상 명령 앞에 당신은 과연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어떤 변명을 늘

어놓으려 하는가!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란 게 있다. 단순히 1+1은 2가 아니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기러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 장거리 비행할 때 무리를 지어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선두에 있는 기러기는 100%의 공기 저항을 받지만, 뒤의 기러기는 저항을 덜 받게 되고, 선두 기러기가 지치면 위치를 교대하여 그 먼 거리를 비행한다. 시너지효과와 반대 개념으로 ‘링겔만효과(Ringelmann Effect)’가 있다. 집단에 속한 개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저하되는 마이너스 현상을 일컫는다. 결국 1+1이 최소한 2가 되려면 각자가 1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이 있는데 뭐’라며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총회장님께서는 올해를 부흥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사력(死力)을 다하고 계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총회장님께 강력한 구령(敕靈)의 소원을 두신 연고다(빌2:13).

‘누군가 하겠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하다가는 그 누구도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예수중심의 가족들이 궁색한 변명이 아닌 자원하는 믿음으로 일심단결하여 전도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보자!

신현명 목사

미국은 1930년대에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은행, 공장, 심지어는 학교까지 문을 닫고, 수많은 경영주들은 자살하며, 실업자가 1억 명이나 생기는 등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때에 ‘J. J. 라스코’라는 사업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많은 실업자들을 동원하여 뉴욕 맨해튼에 거대한 빌딩 공사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라스코는 미쳤어, 저 사람은 망할 거야.”라고 빈정거리고 조롱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있게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410일 만인 1931년 4월 30일, 당시에는 세계 최고층인 102층 건물로 준공한 이 빌딩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이 빌딩은 오늘날 미국의 자존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예수님은 아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그곳

에 있던 모든 자들이 비웃고 조롱했으나 그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이루셨다. 홍해 앞에 백성들은 ‘이제는 끝이다, 죽었다’라고 두려움에 떨었으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가 골리앗에게 겁에 질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우리 이제 깨닫자! 모두가 힘들다, 두렵다, 안 된다 할 때에 도전하는 자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은 세상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다(잠24:10).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노력하는 자를 이길 자는 없다

목숨값

‘Nothing is impossible in Jesus!’(예수 안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주제로 4월 1일 토요일 3시,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열리는 월드프레이즈(World Praise)의 제3차 찬양부흥회가 약 한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말, 3년 만에 열린 수련회가 기점이 되어 시작된 월드프레이즈의 9월 24일 대구 집회와 11월 5일 인천 집회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에베레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라고 외치며 39년간 본이 되신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필사즉생(必死則生)’,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는 정신으로 수많은 난관을 뚫고 온 이월드 목사님을 필두로 찬양으로 복음 전하길 원하는 열정적인 팀원들,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전국의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의 한마음 한뜻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젊은이들로 인한 안타까움에 작년 1월 초, 3일간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이월드 목사님에게 주님은 전국 각지의 찬양을 사모하고 재능있는 청년들을 모아 첫사랑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월드

프레이즈’ 찬양팀을 결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월드프레이즈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추억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매주 대구에 내려와 연습하는 팀원들. 세계로 나가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꿈꾸며 영어와 악기, 카메라와 편집을 배우는 팀원들. 각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며 팀이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팀원들. 또한 월드프레이즈에 동참하면서 문제를 해결 받고 복 받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찬양하면 육체, 가정, 사업에 병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며,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손을 대는 일마다 만사형통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젊은이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교단의 부흥까지 이어지길 소망하는 이월드 목사님과 팀원들의 기도와 노력,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응원하시는 총회장 목사님 이하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4월 1일 ‘월드프레이즈 서울 찬양부흥회’에서도 결실을 볼 것을 믿습니다.

김진실 사모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작정하고 성경 일독 중이다. 교회 성도들과 여러 번 해왔던 통독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이유인즉슨,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다. 그 사람이 말하길 북한과 비교해서, 남한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계신 것 같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보는 성경을 남한에서는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게 해주며, 우리네 신앙이 얼마나 방만해졌는지 깨달음을 주는 말이였다.

남한에서 들고 있는 성경책은 3~4만 원 값일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 들고 있는 성경책은 그야말로 목숨값이다. 목숨 걸고 보는 성경책이며, 목숨 걸고 드리는 비밀예배이다. 숨어서 보는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간절한가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신앙의 자유가 넘쳐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는 도전들이 즐비하다. 또한 말씀의 능력 자체보다는 유리하고 세련된 현대적 성경 해석에 눈길을 더 둔다. 하나님의 목숨값인

성육신과 그 말씀이신 성경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가 말이다. 그 성경을 예수 중심이 아닌 자아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이해 가능한 합리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그 값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신학교에서 첫날 조직신학을 가르치기 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단히 경고하셨다.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려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선을 그어주셨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씀과 신학을 현대성 앞에 무릎 꿇리는 작업이다. 현대의 인본주의, 과학, 역사, 고고학 등의 해석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있도록 높이니 성경의 모든 기적적 실제 사건들을 신화로 여겨 제거하며, 귀신의 역사도 상징으로 치부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도록만 들어 드리지 못함이 안타깝다. 요즘 많은 설교들이 성경 해석의 세련됨과 수준을 자랑하는 듯하다. 절제되고 차분한 언어로 매끄러운 강의를 듣는 것 같아 지성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투박하고 원색적인 설교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성이 간절한 요즘이다.

송직화 목사

바보 같은 삶,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 삶

누군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며 바보 같은 삶이 오히려 성공한 삶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집 한 채 없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한 삶을 사셨던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입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 놓을 테니 어서 집으로 가세요.”

장기려 박사는 어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막막해하고 있으면 이를 눈치채고는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닭 두 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가 써준 처방전입니다.

서울대, 부산대 의대 교수, 부산 복음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방 한 칸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월남 후인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 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

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 당시 100원 하는 담뱃값만도 못한 월 보험료 60원에 뜻 있는 사람들과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여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 명의 영세민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국가보다 10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의료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보!’, 그러나 그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청지기의 삶을 살았고, 주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 한 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했고, 자신이 청송받는 것을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원의 사랑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평양의대병원 2층 수술실에서 그가 밤새워 가며 부상당한 국군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이 병원 3층에 떨어졌습니다. 국군들은 모두 재빨리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일평생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

했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며 1990년에 쓴 망향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에는 듯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었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 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가 북한당국과 합의하여 중국에서 장기려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그 기회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가족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 8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내가 죽고 나거든 나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다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처럼 우리도 바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1440 포인트

매일 내게 주어지는 1440 포인트가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받는 순간부터 조금씩 사라져 하루의 끝에는 모두 없어진다. 그래서 당일 어디에든 모두 사용해야만 하고, 아무 데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 저축하듯 쌓아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단지 내가 사용하는 곳에서만 다른 가치로 전환되어 쌓이게 된다. 조금 사용한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작은 변화만 생기고,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다만, 좋은 의도로 잘 사용했을 때 그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성공으로, 행복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옥으로, 실패로, 불행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

그 1440 포인트의 사용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성경, 가족, 연인, 친구, 공부, 사업, 운동, 게임, 놀음, 방탕 등. 하나님께 사용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공부에 사용하면 박사가 되고, 놀음에 사용하면 폐인도 될 수 있다. 맞다, 그 포인트는 바로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매일 14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기도에,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사용하고, 누군가는 쾌락에 사용하거나 그저 허무하게 보내버린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올해 나는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5:15~16).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튀르키예를 도웁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22494
농협 1379-01-001903

:: 생활 속의 잠언 ::

응답 없는 기도는 ‘내 탓’

요즘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신혼에도 누리지 못했던 남편과의 생활은 상상 이상의 시간입니다. 술을 좋아하고 잔소리가 심한 남편을 멀리하고 피해 다녔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때가 되니 그 기도의 응답 덕분에 지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초석 목사님께 전수받은 강력한 영적 권능은 기도였습니다. 삼십 년 훨씬 웃도는 세월 동안 기도를 원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믿음은 누구도 흔들거나 뺏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업장이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매출이 떨어지자 기도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주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고, 평생을 동행하신 주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불안과 고통의 시간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지가 가동되어 해결된 문제를 보면서 매일 주님께 간구를 드렸던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기도가 머쓱해졌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주님 의지하는 삶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 하나도 기도로 구하고 주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유독 돈(물질)의 문제는 기를 쓰고 직접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는 합니다. 여전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과는 동떨어지고 믿음 또한 흔들리

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작은 것 하나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주신 작은 인생의 배 안에서 틈만 나면 뚫대질도 하고 삿대질도 하며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맞으면서 내 뜻대로의 행적을 만들어갑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애통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 자신 없는 삶의 부분뿐 아니라 내 평생 전공인 삶의 모든 것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길 다시 한번 눈물로 애통합니다. 주님, 당신의 권능의 손길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멘.”

오자유 집사



우리가 떠난 길은
너른 길이 아니라네
도중에 포기할 수도 없다네
말에 오른 이상 달려야 한다네
조롱과 야유가 쏟아져도
환란과 핍박이 몰려와도
내릴 수 없다네
내 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네
내 님 계신 그곳까지...
왜 내릴 수 없을까?

朋友